

## 그리스를 그리다: 그리스의 하늘, 델피

전날 페리에서 푸른 에게해(Aegean Sea)를 향해한 여덟 시간을 보내주고, 아테네(Athens, Αθήνα)에서 델피(Delphi, Δελφοί)까지, 다시 한 번 먼 여정을 떠났다. 이번엔 북쪽으로! 버스를 한참 탔는데, 그때 본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어느 높은 건물에 전혀 막히지 않고 저 멀리까지 펼쳐진 푸르른 초원과 밭, 수많은 유도화(柳桃花)를 지나쳐 갔다.



버스에서 바라본 풍경



유도화

유도화는 분홍색의 예쁜 꽃이었는데, 여러 송이가 나란히 열 지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이 꽃은 그리스 길가에서 자주 보였는데, 가이드님은 유도화가 독성이 강해 벌레를 내쫓아 주기 때문에 그리스는 국가에서 주도해 도로 주변에 유도화를 심는다고 말해주셨다. 미학적인 동시에 특정 기능을 하는 게 그리스라는 나라와 참 잘 어울리는 꽃이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위로 길쭉하고 뽕죽하게 생긴 세모 모양의 나무들도 많이 보았는데, 한국에선 전혀 볼 수 없던 신기한 모습의 나무라서 외국이라는 느낌이 물씬 났다.

경치를 보러 잠깐 들른 아라호바 마을(Arachova, Αράχωβα)에서 본 기암괴석 위 홀로 우뚝 솟은 시계탑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시계탑은 구름 바로 밑에 위치해 파란 하늘과 닿는 듯했고, 초록색 풀로 뒤덮인 바위 위에서 서 있어 마치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os)와 대지의 신 가이아(Gaia)가 만나는 장소 같았다.

드디어 델피에 도착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있었다. 사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에 있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불타는 태양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내리찍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등에 주르륵 흐르는 땀과 여기저기서 우릴 구경나온 벌레 떼. 하지만 파르나소스 산(Parnassos, Πάρνασσος)의 웅장함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고 우리의 감각을 빼앗았다.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볼 때 그림 같다고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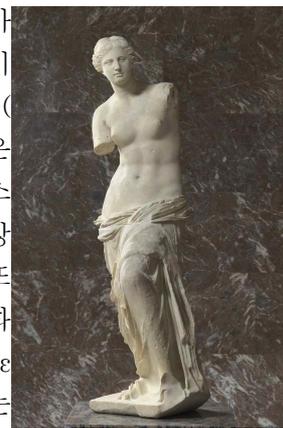
아라호바 마을의 시계탑

버릇처럼 말하지만, 델피의 풍경은 차원이 달랐다. 국가가 주관하여 전시하는 그림 같았다.



파르나소스 산으로 둘러싸인 델포이 신전  
 파르나소스 산은 조각칼로 곁마다 섬세하게 깎아내 만든 조형물처럼 아름다웠다. 자연만큼 인간을 압도하는 게 있을까? 관동별곡에서 산봉우리를 보고 조물주의 손재주를 찬사한 정철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다.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누가 설계하고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각 같을 수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광경이었다.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꼭 사람이 만든 것처럼 높이와 너비가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환경에서 살아온 그리스인들이 조화와 균형을 따진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여서 헬레니즘(Hellenism, Ἑλληνιστικός)을 은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어 "Ἑλλην"에서 유래됐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그리스인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헬레니즘은 당시 그리스적 사고방식이다. 인간 중심 사상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현세를 중요시한다. 또한 인간을 세상에 중심에 둔만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느끼는 조화와 균형을 존중한다. 때문에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Parthenon, Παρθενώνας), 밀로의 비너스(Venus de Milo) 등 그리스는 인간이 느끼는 황금비율, 1:1.618을 추구하기로 유명하다.



Milo. *Vénus de Milo*.  
 3rd quarter B.C.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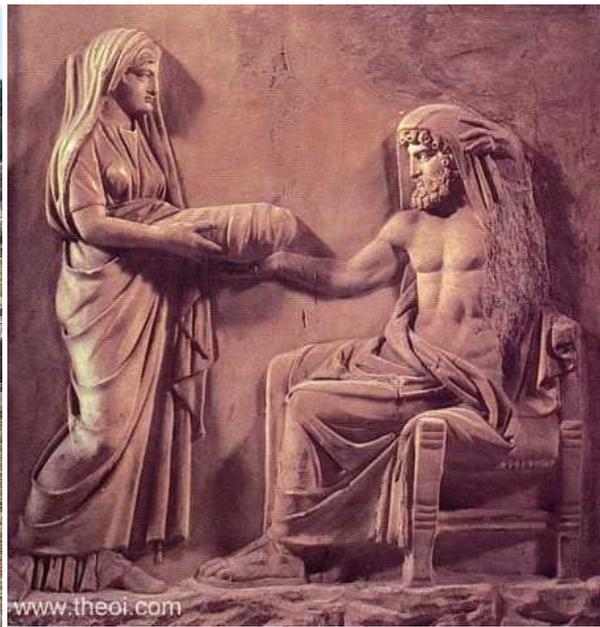
헬레니즘은 그리스 신화에 그대로 녹아있는데, 그리스 신화에(-150 - -125). statue. 등장하는 신부터가 그렇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과 많이 닮았다. 모뎀Louvre Museum, Paris 지기 신이라 하면 관대하고, 모든 것에 통달해있고, 인간이 하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을 훨씬 넘어 사유하기 마련이다. 말 그대로 완벽하기에 숭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존재 자체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종교의 신들과 차원이 다르다. 신인데 신성시되지 않는다고나 할까. 그리스 신화 속 신은 인간을 투영한다. 인간의 마음을 하고, 인간의 본성으로 행동하고, 인간과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어긋난 욕망, 시기, 복수, 전쟁, 모략, 잔피...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까지도 닮아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리스 신화는 피상적으로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이기에,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간 중심 사상인 헬레니즘이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의 배꼽, 옴파로스(Omphalos)를 만났다. 옴파로스는 그리스어로 배꼽이란 뜻이다. 고대인들이 델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은 이유는 제우스(Zeus)가 지구 양끝에서 보냈던 두 독수리가 되돌아왔을 때 만난 지점이 델피였다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때 제우스가 그 자리에 지구의 중심이란 표식으로 놓은 돌이 바로 옴파로스다. 옴파로스가 갖는 의미는 또 하나 있다. 올림포스 12신에서 신들의 왕, 지배자를 맡고 있는 제우스는 사실 첫째가 아니라 여섯째다. 여섯째인 그가 올림포스 12신의 우두머리가 된 경위는 이러하다. 12신은 크로노스(Cronos<sup>1)</sup>)와 레아(Rhea) 사이에서 태어났다. 제3대 신이었던 크로노스의 아버지는 제 2대 신인 우라노스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의 부탁으로 우라노스를 거세해 물리치고 권력을 휘어잡지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에게 반란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는다. 저주처럼 자식이 자신의 권력을 뺏을까 두려웠던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자식들을 모조리 삼켜버렸고, 이미 다섯 명의 아이를 뺏긴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크레타섬(Crete, Κρήτη)에서 몰래 여섯 번째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레아는 돌을 아이인 척 포대기에 싸 크로노스에게 건넸고, 그는 곧장 돌을 삼켰다. 이 돌이 바로 옴파로스다.



옴파로스



Rhea, Cronus and the Omphalos stone. Greco-Roman marble bas-relief. N.d. Capitoline Museums. *Theoi*. Web. 25 August 2022

1) Cronus 또는 Kronos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배꼽은 우리 몸의 정중앙, 즉 중심이자 어떤 존재가 세상에 나온 증거이다. 인간을 포함한 몇몇 생명체는 모체와 연결되어 있던 탯줄이 끊기면서 배꼽을 달고 태어난다. 인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배꼽처럼 움파로스는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배꼽을 가져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듯이 움파로스가 있었기에 제우스는 무탈히 탄생할 수 있었다. 사실 배꼽은 단순히 탯줄이 붙어있던 곳의 흔적일 뿐이다. 심장처럼 막대한 임무는 커녕 머리카락처럼 사소한 기능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비슷했다. 한국에서 이미지로만 보던 그리스는 유적지 천지에 벅차오르는 에게해와 흰 색과 파란색의 조화로 보기만 해도 시원했던 산토리니(Santorini, Σαντορίνη)의 모습까지, 한없이 찬란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는 조금은 초라했다. 아테네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이 노후해 보잘 것 없었고, 아크로폴리스(Acropolis)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단이기도 복원을 한참 오래 질질 끌며 크레인이 들어서 있었다. 방치돼 있는 무너진 건물 외관에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엿보였다. 도시가 실망이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움파로스처럼 그리스는 세상 문명의 중심지고, 특히 서양 문명의 뿌리다. 과거 강국의 영광은 퇴색됐을지 몰라도, 유럽 국가 중 고대 그리스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스 신화는 여전히 현대 문화에 모티프를 제공하고 상상력의 토대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스는 위대한 상상력의 장(場)으로서 인간 존재 탄생의 기원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아폴론 신전(Temple of Apollo)은 상상력의 풀이가 필수였던 곳이었다. 델포이 신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이었다.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에게 내려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 또한 바로 델포이 신탁에서 비롯되었다. 델피에는 예언의 신, 아폴론(Apollo)의 신전이 있었는데, 아폴론의 신탁을 받기 위해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발길이 델피로 향했다. 지금은 기둥 몇 개뿐인 터였지만, 그 위로 세워져있었던 신전이 그려지며 그 안에서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피티아(Phythia)와 신탁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상상되었다. 그리고 신전을 에워싸고 있는 파르나소스 산의 위압감이 더해져 가슴이 떨렸다.



델포이 아폴론 신전



John Collier. *Priestess of Delphi*. 1891. oil on canvas.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Australia.

피티아는 피톤(Python)의 아내인데, 아폴론이 델포이 신전을 차지하려고 피톤을 죽이고 남편을 잃은 피티아를 가엾게 여겨 무너로 델피에 자리를 만들어주었다고 전해진다. 아폴론 신탁은 애매하기로 악명 높았는데, 게다가 피티아는 약에 취해 웅얼거리며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기 때문에 피티아의 말을 다시 해석해주는 사제도 따로 있었다고 한다. 결국 아폴론의 신탁은 해석에 해석을 거듭하여 전달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이 실마리를 던져주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여기서도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헬레니즘을 느낄 수 있다. 신이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꽃 피울 수 있었지 않을까? 문명을 성장시키거나 쇠퇴시키는 것, 그리고 그 문명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들의 이성, 사고, 논리가 발휘될수록 문명이 발전될 수 있다.

신과 무속, 심지어 미신까지도 잘 믿지 않고 그런 것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신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탁이 실제로 믿을 만하다고 입증된 건지 의심부터 했다. 하지만 델포이 신전에서 규칙적으로 쌓아 견고한 벽과 흔들림 없이 우뚝 선 기둥을 본 순간, 신탁이 진짜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신탁과 신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 번에 알아차렸다. 하나의 정답을 내리는 것보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도 절이나 교회, 성당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는데, 이처럼 델포이 신전은 심적 안정, 고요, 평화, 균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철저한 설계에 안정감을 느끼고, 산 바로 근처라는 위치가 주는 경이로움에 압도된 경험이었다.



델피 유적지 벽과 기둥에는 그리스어 글자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돌벽에 그리스어가 매직아이처럼 빈 데 없이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회의 내용을 기록해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를 품는 정성이라고 느껴져 역시 민주주의의 근원지답다고 감탄하던 와중, 가이드님께서 아폴론 신탁 벽에는 한 유명한 글귀가 새겨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나도 그랬고 거의 전 국민이 소크라테스(Socrates)의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 신전에 먼저 새겨져 있던 말이었다. 아폴론은 예언의 신과 동시에 이성의 델포이 유적지 돌벽에 새겨진 글자들 신이다. 헬레니즘 역시 직관을 이용하는 헤브라이즘과 달리,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해 이성을 기초로 한다. 때문에 이 글귀에서도 헬레니즘을 느낄 수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는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말로 해석된다. 자기성찰, 자기이해, 그리고 자기객관화로 이어진다. 이성을 통해 너 즉, 인간 스스로를 탐구하며 인간의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탐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서양식 사고와 영문학의 뿌리가 그리스식 사고,

다시 말해 헬레니즘이었을 수도 있다.

델포이의 바닥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딱 좋았는데, 이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계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지 상상해 보았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자각하면서 장엄한 기운에 휩싸였다. 특히 과거 기원전에 고대인들이 방문했던 곳을 21세기에 내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다. 인간 문명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에 놀랐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고대인들 상상의 산물이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이 카오스(chaos)라 불리는 혼돈에서 시작되었고, 카오스로부터 각각의 신이 태어났다고 믿었다. 에너지 덩어리가 폭발하면서 공간이 생겼다는 빅뱅이론이 세상에 나오기 오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와 비슷한 카오스를 먼저 상상해냈다. 이것이 로고스(logos)에 대항하는 미토스(mythos)의 힘 아닐까? 인간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동물이다. 근원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있어왔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지금은 대체로 과학을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세상이 생기고, 만물이 탄생하고, 인간이 태어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된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이다. 신화를 비롯해 고대 철학의 발원지인 그리스는 발전하는 내내 인간 스스로의 문답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하는 헬레니즘과 함께였다.